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 성료 든든한 버팀목 ‘군민안전보험’

고로쇠 숲 탐험대 · 고로쇠 고추장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진행된 제21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가 주천면 삼거광장에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축제장을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축제에 참가한 관광객들이 각종 프로그램 및 다양한 체험 부스에 참여하려는 열기가 축제장을 가득 채웠으며 대표 프로그램인 ‘출발! 고로쇠 숲 탐험대’, ‘고로쇠 고추장 만들기’, ‘고로쇠 고원길 걷기’는 축제장의 큰 인기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으며, 많은 방문객이 참여했다.

특히 올해 첫 추진한 ‘고로쇠 고추장 만들기’ 현장 집수가 순식간에 마감돼 큰 인기를 누렸다.

그 밖에도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무대 공연으로 축제장을 가득 채워 분위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궜다.

또한 현장 판매로 준비된 고로쇠물이 전량 판매됐으며, 확대 운영한 간식류 운영 부스도 관광객으로 붐비며 매출액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21회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주천면 삼거광장에서 전국 각지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축제장을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사진은 개막 퍼포먼스

한 관광객은 “운임암반일암을 걸으며 마신 고로쇠는 겨울 동안 음조했던 몸을 싹 녹여주는 그 어떤 물보다 상쾌한 꿀맛이었다.”며 “봄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에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다양한 먹거리가 있어 너무 행복했고, 내년 축제에 다시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전춘성 군수는 “진안군 대표 볼축제인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기쁘고, 도민들에게 각박한 도시의 일상으로부터 해방돼 진안고원의 청정 자연속에서 휴식과 충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민들 서울대병원 진료 받는다

4월 19일 의료취약계층 250명 대상 무료 순회 진료... 14일까지 신청

무주군은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무료 순회 진료가 오는 4월 19일 예체 문화관 대공연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진료는 무주군이 지난 2021년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체결한 의료사회공헌사업 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무주군에 주소를 둔 의료취약계층과 기저질환자 등 의사 진료를 필요로 하는 주민 250명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오는 14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에서 받는다.

무주군에 따르면 내과를 비롯한 이비인후과, 안과, 부인과, 치과 등 과목의 진료와 함께 X-ray, 초음파, 혈액, 부인과검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사자 중 2차 검사가 필요한 의료급여대상자, 저소득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에서 무료로 정밀 추가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서울대학교병원(본원) 입원 및 수술도 가능하다.

무주군보건의료원 보건행정과 보건

행정팀 유상철 팀장은 “무주군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검사와 진료를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의료진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무엇보다도 2차 진료로의 연계가 가능한 검진인 만큼 평소 건강 관리가 힘들었던 분들이 꼭 참여하실 수 있도록 알리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2021년 7월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와 의료사회공헌 협약을 체결한 상태로, 대상자 사제관리와 대상자 선정 및 추천, 유증상자 사후관리,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 행정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있다.

무료 순회 진료는 격년으로 진행하며 이 사업을 통해 지난해까지 128명이 검사 및 진료를 받았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향교 전교 이·취임식 진행

장수군은 지난 9일 장수향교 총효당에서 장수 향교 전교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훈식 군수, 최한주 군의회 의장을 비롯하여 유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임 육동수 전교의 이임과 신임 이경술 전교의 취임식을 가졌다.

이경술 신임 전교는 취임사를 통해 전임 육동수 전교에 대해 “봉사정신으

로 타고난 추진력과 역량을 발휘한 그간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유림의 친목과 화합과 전통문화계승에 힘써왔으며 실천하는 훌륭한 전교이었다”고 회고했다. 또한, “이제 신임 전교로서 선배 전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유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유림들과 함께 장수향교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최훈식 군수는 “장수향교가 장수군



의 전통문화 계승의 중심 역할을 해온 만큼 새롭게 취임하신 이경술 전교님에게도 우리지역에 유교정신을 전승하고 전통과 예절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주군, 자동 가입 · 보장... 사회재난 사망보험금 2배 확대

무주군이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해 군민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불의의 재난·사고 피해를 입은 군민을 구제하기 위해 시행 중인 것으로 올해는 사회재난 사망 시 보장 금액을 2배로 확대했다.

무주군에 따르면 해당 부분의 기존 보장 금액은 1천만 원이었으며 올해부터는 화재를 비롯한 붕괴, 폭발 등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시 2천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박각중 과장은 “군민안전보험이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가족들이 다시 일어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민 의견을 들어 보완하거나 또 활용,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서 지난 2019년부터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보장받을 수 있다.

사고 당시 무주군민이었다면 현재 주민등록 소재지는 물론, 사고 발생지역과 상관없이 보장 항목별 한도 내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주요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 사망, △사회재난(화재, 붕괴, 폭발 등) 사망,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및 후유장애, △감염병 사망,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등 34개 항목, 보장 금액은 사망 시 최대 5천만 원, 후유장애 시에는 3천만 원 등으로 개인이 가입한 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보장 기간은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28일까지로 1년마다 자동으로 갱신된다. /무주=전문선 기자

무주군, 농업 현실 맞춘 농작업 서비스 ‘호응’

무주군이 농기계 임대 및 순회 수리(교육)를 비롯한 농작업 대행 서비스로 부족한 일손을 거둬들여 경영상에 기여하고 있다.

잔가지 파쇄기, 동력운반차 등 농기계 78종 487대를 보유하고 있는 무주군은 올해 무주 분소(상시 운영)를 비롯한 무풍과 안성 분소(월·토요일 운영) 3곳에서 임대 사업을 진행하며 하우스와 밭 정리 작업을 비롯한 사료작물 수확 등 11종의 농작업을 대행한다.

또 330종 19,662점의 부품을 실은 3.5톤 무상 수리 차량이 농기계 수리점이 없고 교통이 불편한 원거리 마을을 돌며 경운기와 관리기, 방제기, 예초기 등의 소형 농기계 수리와 안전교육을

/무주=전문선 기자

병행한다.

오는 8월까지 실천면 월현마을 등 80개 마을을 순회할 예정으로 자가 정비 기술을 비롯한 올바른 농기계 작동법, 그리고 안전 수칙 등을 공유하게 된다.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업기계팀 배진수 팀장은 “농기계 임대 및 농작업 대행, 순회 수리 관련 사업은 고령농과 여성농이 많아지고 있는 지역의 현실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라며 “올해는 농가 이용률을 높이는 데 주력해 농가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안기고 농업경쟁력 또한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진안군, 자주찾는 민원업무 안내책자 배포

진안군은 2025년 진안군 자주찾는 민원업무 안내책자 를 제작하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했다.

군은 매년 부서별 종합민원 안내책자를 작성해 군민들이 민원 업무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해 왔다.

하지만 종합민원안내책자가 각 부서의 업무와 신청 서식 등을 담고 있어 1,000쪽이 넘는 방대한 양으로 제작돼 민원인이 쉽게 검색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는 군민들이 자주 찾는 민원업무에 대한 안내와 함께



담당 팀의 연락처를 표시해 더욱 쉽고 빠르게 민원업무를 찾을 수 있도록 안내책자(요약본, 130쪽)도 제작했다.

2025년 진안군 자주찾는 민원업무 안내 책자는 진안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 소식통

춘기 석전대제 봉행

장수향교 장수군은 지난 9일 장수향교(전교 이경술) 주관으로 향교 대성전에서 유림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춘기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석전대제는 석전제·상정·정제라고도 하며 매년 음력 2월과 8월의 상정일(上丁日)에 성균관 및 향교 대성전에서 공자를 비롯한 선성과 성현들의 학덕을 추모하기 위해 올리는 제사의식이다.

이날 행사에서 초헌관은 육동수, 아헌관은 고봉기, 종헌관은 신인식 유림이 봉행했으며, 전통 제례순에 따라 초헌관이 분향하고 폐백을 올리는 전폐례를 시작으로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음복례, 망료례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경술 장수향교 전교는 “석전대제는 문화·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청소년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예절과 충효사상이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수향교에서는 석전대제를 비롯해 장수의 유교 전통 문화를 널리 홍보하고 계승하여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 · 용담향교 진안향교(전교 이한석)와 용담향교(전교 이부용)는 지난 9일 각각 석전대제를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공자를 비롯한 옛 성현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의식으로, 지역 내 헌관 및 재관, 유림 100여명이 함께 모여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제례는 전통에 따라 초헌관의 전례 폐를 시작으로,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분헌례, 음복례, 망료례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유학의 이념과 성현의 가르침을 되짚어보며, 서로의 안녕을 기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용담향교 초헌관으로 참여한 전춘성 군수는 “석전대제가 유교 전통을 계승하며 공동체의 결속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전통 행사를 이어나가 우리의 전통문화와 가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곡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